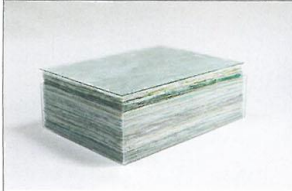


바이런 킴_Sky 전

February, 2018 | 정승 기자

preview



박형진 (8cm의 녹조-강물은 다시 흘러아합니다)



리오미 (라이거와 타이곤의 초상)

2018 Creative Report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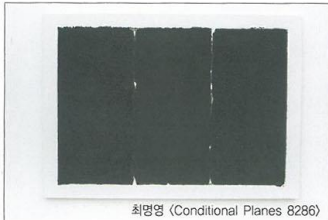
1.11-3.3 OCI미술관 2017년도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성과 보고의 자리로 김푸르나, 나광호, 라오미, 박형진, 사윤택, 이현호, 허수영, 그리고 주대준 총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평면 작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지만 이들은 다양한 연출 방식을 활용해 회화를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구현해냈다.



〈악의 꽃〉 설치 전경
(첩경)

조경란 암전 전

1.26-2.24 CR Collective 조경란의 신작 〈박〉, 〈소품들〉, 〈타워〉 등 영상 설치 작업을 선보이는 전시. 언어와 예술의 구조적/ 비구조적 모순을 고찰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재난, 죽음 등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은폐된 부조리함을 밝힌다.



최명영 (Conditional Planes 8286)

Black Selections 전

2.2-3.20 갤러리 신라 검은색에 초점을 맞춘 전시가 열린다. 레슬리 폭스크로프트(Lesley Foxcroft), 귄터 움버그(Günter Umberg),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와 같은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거장들을 비롯해 곡인식, 김호득, 문범, 심문필, 제여란, 최명영이 참여했다.



구지윤 (Jungle)



이은우 (돌무늬)

구지윤, 이은우_Illusion 전

1.25-3.10 AMC Lab 서로 다른 형식의 작업 방식을 취하는 구지윤과 이은우가 만났다. 구지윤은 일상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사건들을 캔버스에 직관적으로 옮겨오는데 반해, 이은우는 구체적인 사물의 특성을 포착하고 극대화해 용도를 없애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이 함께 꾸미는 전시는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공간이 된다.



〈Untitled (for H.W.S.)〉

바이런 킴_Sky 전

2.1-2.28 국제갤러리 바이런 킴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일요일의 하늘을 같은 크기의 소형 캔버스에 그린 'Sunday Painting' 연작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날씨에 따라 푸른색과 회색조를 넘나드는 하늘과 다양한 형태의 구름을 묘사하고, 그 위에 개인적인 기록을 남긴다. 또 도시의 밤하늘을 그린 〈Untitled (for...)〉와 '도시의 밤' 연작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